

## 문화는 관심 속에서 자란다

### 황의민 <출판저널> 편집인

<출판저널>속간호를 펴낸다. <출판저널>이 받았던 사랑이 컸던 만큼 속간호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. 그렇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출판문화 정론지를 만든다는 데 모두 의기 투합하며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.

책은 하나의 그릇이다. 그 그릇에 지식의 산물을 담는다는 게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닐 터인데,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남는 아쉬움을 섞어 독자 여러분께 평가를 받기로 했다. 속간호를 내면서 <출판저널>에서는 몇 가지 서평 실험을 감행한다. 한 가지는 <출판저널> 기자들의 이름으로 '이달의 책, 이달의 저자'를 선정하는 것이고, 한 가지는 더 많은 일반 독자들을 만나기 위한 교양적 콘텐츠의 구성이다. 서평문화의 본모습은 일부 마니아에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, 그럼으로써 문화지형도의 틀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. 이런 측면에서 인문사회, 문학·예술, 아동, 경제경영, 과학 등 각 장르에 고른 시선을 보내고자 노력했고,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 시각적 편집을 도입한 것도 <출판저널>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자평한다. 특히 <출판저널> 기자들의 현장감 넘치는 기획기사와 인터뷰, 리뷰에도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란다.

서평문화를 본격 논의한 '좌담'과 '<출판저널>에 바란다'에 드러난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비중 있게 받아들여졌으면 한다. 이는 <출판저널>의 개방적 자세를 알리는 한편, 비판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.

우리도 언제쯤 <퍼블리셔스 위클리> 같은 서평문화지를 가질 수 있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. 그분들에게 <출판저널>이 한국적인 출판문화 정론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이번 속간호를 펴낸 의의는 충분하다고 본다.

출판인, 독자, 저자, 서점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<출판저널>의 속간호를 기뻐하고, 질정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. 문화란 그렇게 관심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일 터이다. ■